

##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김 현 승<sup>†</sup>                      박 지 선<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 상황,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임이나 비난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까지 총 160명(남녀 각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전 연인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더 비난하며, 피해자의 책임은 더 적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자의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갖는 형사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이버 스토킹,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피고인-피해자 관계, 피고인 비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 제1저자: 김현승,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 졸업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Copyright © 2023,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의사소통이나 연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과도 연관될 수 있다(Mullen, Pathé, & Purcell, 2001). 특히 온라인 스토킹이라고도 불리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스토킹을 지칭하는데,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때로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성식, 장하영, 2020; 정도희, 2022). 또한 글이나 이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한편,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사이버 스토킹의 특징 중 하나이다(박현정, 2022; 정완, 2021).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글이나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한다(김은주, 류영숙, 이지원, 이희진, 2021).

사이버 스토킹은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되기 위한 법의 구성요건에 모호한 부분이 있고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보다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는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포괄하기 어려우며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법과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법률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정도희, 2022; 정완, 20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전에 제정된 법률, 즉 형법

을 비롯한 다른 법령에서도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김은주 등, 2021).

2021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사이버 스토킹을 경험한 바 있으며 오프라인에서의 가해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된 경우도 존재하였다(김은주 등, 2021).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 또한 사이버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들 어본 적은 있어도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약 28.3%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응답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은주 등, 2021).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인 해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피해를 초래한다. 즉, 스토킹 피해자들은 주소지 이전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기도 한다(송민진, 박현정, 2021). 이러한 피해는 사이버 스토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위축되어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겪는 경향이 있다(송민진, 박현정, 2021).

이처럼 사이버 스토킹의 심각성과 그 해악에 비해 이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미흡하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 역시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내의 스토킹 관련 연구는 법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에 비해 심리사회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 수

립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인식 반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김은영, 윤민우, 2016).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를 향한 시선, 양형 등 폭넓은 예방정책의 수립 및 법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박순진, 2012; 박지선, 2014), 사이버 스토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이 점차 중요해지는 데에 반해 사이버 스토킹과 관련된 인식 연구는 여전히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 성별이나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판단자의 특성이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관련 형사정책 수립 및 피해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 피해자와의 관계와 판단자 성별의 영향

스토킹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한편, 스토킹과 관련된 연구는 그간 적으나마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우선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강간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다만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사이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기도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즉 비면식 관계일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Abrams, Viki, Masser, & Bohner, 2003; 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 이에 반해 스토킹 사건 인식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영향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였던 경우보다는 서로 모르는 사이일 경우에 발생한 사건이 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 개입이 더 필요하며 가해자를 더 비난하는 한편 피해자의 책임은 더 낮다고 판단되었다(조혜민, 박지선, 2022; Chung & Sheridan, 2021; Scott, Rajakaruna, Sheridan, & Sleath, 2014; Weller, Hope, & Sheridan, 2013).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판단자의 성별 또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김은영, 2016;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2020). 즉,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 상황에 대해 스토킹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해의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김은영, 2016).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스토킹의 해로움을 더 높게 인식한 한편, 여성보다 남성이 스토킹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사건의 심각성은 축소하여 판단하였다(조무용, 김정인, 2016; Lambert, Smith, Geistman, Cluse-Tolar, & Jiang, 2013). 특히 사이버 스토킹 가해 경험과 의도에 대해서도 성차가 나타났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스토킹 가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후 사이버 스토킹 가해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이성식 등, 2020; 이성식, 장하영, 2020).

피고인에 대한 책임 판단이 피고인의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쳤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사이버 스토킹의 가해 경험에 많고 가해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난 선행 연구를 고려한다면(이성식 등, 2020; 이성식, 장하영, 2020; 조은경, 박지선, 2021), 사이버 스토킹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과 피고인 비난, 피해자 책임 등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스토킹 사건 인식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친밀한 사이일 때와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및 피해자 책임 등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 차이를 보고했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Scott et al., 2014; Well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전 연인 관계와 비연인 관계로 나누어 사건 판단을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성적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데이트 폭력 등 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성희롱 통념이나 권위주의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오주령, 박지선, 2019; 윤정숙, 2018; 홍지웅, 주해원, 현명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공격성,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 등의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이란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여 관계를 맺고 상호관계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일컫는다(Spitzberg & Cupach, 1989). 대인관계 유능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으로는 성공적인 목표 및 과업 성취로 정의되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사회적 또는 대인관계적 규범이나 규칙, 기대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 적절성(appropriateness)이 있다(Spitzberg & Cupach, 1989).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는 반면(조혜경, 2018), 대인관계에서 남성의 갈등 관리 능력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도 있으며(이지선, 정혜정, 2016),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는 능력이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Smith-Adcock & Kerpelman, 2022). 다만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여성 연구 참여자가 73.7%로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하였지만(조혜경, 2018),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이지선, 정혜정, 2016; Smith-Adcock & Kerpelman, 2022). 즉,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선행연구의 경우 간호대학생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표본의 특성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상대방과의 관계와도 상호작용하여 성차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연인 관계 조건에서 관계를 개시하는 유능성은 남성이 더 높았던 반면 친구 관계 조건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성의 갈등 관리 능력은 연인 관계 조건보다 친구 관계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Bu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이 적고, 이는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권보정, 2021; 오지혜, 윤희미, 2017). 즉,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타인을 조종, 통제하려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홍애순, 2022). 아울러, 대인관계 유능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다(Di Stasio, Rinaldi, Sciaraffa, & Cheong, 2020). 주목할 것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을수록 자신의 감성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특히 스토킹의 경우 상대의 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해석하는 데 기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홍애순, 2022). 대인관계 유능성은 인지적 공감과도 관련이 있는데(김경희, 이희경, 2015; 우옥수, 이자영, 2020), 가해자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성격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 비난 등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Bongiorno, Langbroek, Bain, Ting, & Ryan, 2020), 대인관계 유능성 또한 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나 인식에 타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이 높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인관계 유능성이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고인/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대인관계 유능성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이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 관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이란 직·간접적으로 타인을 조종하려 하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비신체적인 공격성을 지칭한다(Leff, Waasdorp, & Crick, 2010). 예를 들면, 자신의 뜻대로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에 대한 험담을 하여 평판을 떨어뜨리려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Leff et al., 2010).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물리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교묘하고 은밀하게 표현된다는 특징이 있다(김현진, 김해란, 2018). 또한 제삼자뿐 아니라 피해자 본인조차도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meter, & Markon, 1999).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이하연, 박주희, 2014; 임정우, 홍혜영, 2016). 우선 성별과 관련하여,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공격성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배라영, 최지영, 2018; Crick & Grotmeter, 1995).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신체적 폭력을 포함

한 모든 유형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쳐,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영, 박완주, 2021). 관계적 공격성은 사건의 심각성 축소나 피해자 비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이들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가해 정도를 최소화하였다(Miller-Ott & Kelly, 2013).

이에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처와 관련이 높은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의 심각성 판단이나 피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등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차이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배라영, 최지영, 2018) 성별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 인식 차이에 있어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 연인일 때보다 비연인일 때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

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더 인식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높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을 것이다.

**가설 2.**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은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은 축소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높을 것이다.

**가설 3.**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매개할 것이다.

**가설 3-1.** 남성이 여성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고,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사건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및 책임 판단은 높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 및 책임 판단은 낮을 것이다.

**가설 3-2.**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 심각성은 낮게 인식하고 해당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지하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낮고 피해자 비난, 책임 판단은 높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21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은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른 비율은 모두 동일하도록 설정하였다. 즉, 여성이 80명, 남성이 80명으로 동일하였으며,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연령대별로 40명씩 균등하게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여성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7.25세( $SD = 10.49$ )였으며, 남성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2.43세( $SD = 10.34$ )였다.

#### 연구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대해 동의를 한 후 참가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전 연인 관계 vs 비면식 관계) 중 하나의 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의 심각성과 해당 사건의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에 대한 비난과 책임,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에 대해 각각 응답하였다. 이어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관계적 공격성 척도에 응답하였다.

#### 측정도구

##### 피고인-피해자 관계, 판단자 성별

본 연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전 연인 관계와 비면식 관계로 설정하였으며, 판단자의 성별은 연구 참여자의 성별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였다. 피고인-피해자 관계 조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성비와 연령대에 따른 비율이 동일하여, 전 연인과 비면식 관계 두 조건 모두 각각 여성과 남성 40명씩, 20대부터 50대까지 20명씩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례(창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869 판결 등)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오프라인 스토킹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이버 스토킹 관련 내용만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피고인-피해자 관계에 따른 서술(전 연인 관계 혹은 비면식 관계) 이외에는 모두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가량 교제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 피고인은 한 인터넷 동호회에서 활동하던 중, 같은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된 피해자의 SNS 계정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생각 잘 하고 행동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연락할까 두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 사이버 스토킹 인식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을 사건의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비난, 피고인 책임, 피해자 비난, 피해자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스토킹 사

건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 상당히 심각하다)로 측정하였고,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7: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피고인 비난은 ‘피고인이 어느 정도로 비난받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 책임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응답하였고,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피해자 비난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책임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 대인관계 유능성

본 연구에서는 콕민주(2020)가 수정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한나리와 이동귀(2010)가 번안 및 타당화하여 제작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K-ICQ)를 수정한 척도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K-ICQ)의 원문은 Buhrmester 등(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이다. 해당 척도는 5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계 형성 및 개시’, ‘타인에 대한 배려’,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적절한 자기개방’, ‘갈등 관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한다. 본 척도는 ‘나는

친한 친구와 의견 불일치가 생겨 큰 싸움이 되려고 할 때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는 친구가 나를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나는 친구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나는 싸우면서 친구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그의 관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혹은 데이트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가리킨다. 한나리와 이동귀(2010)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콕민주(2020)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로 나타났다.

### 관계적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Nelson과 Carroll(2006)이 개발한 Couples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cale(CRAViS)을 정유지(2022)가 수정하여 번안한 연인 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평판 손상(예: ‘악의적으로 애인에 대한 소문이나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린 적이 있다’, ‘애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 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과 ‘애정 철회(예: ‘애인이 내 뜻대로 따를 때까지 일부러 그를 무시한 적이 있다’, ‘애인에게 화가 날 때 그에게 냉랭하게 대한다’)’와 같은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해당 척도에서의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유지(2022)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6.0과 PROCESS macro 4.1 버전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이 달라지는지에 관한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 2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 차이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건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비난 및 책임, 피해자 비난 및 책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일 때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t(152) = -3.64, p < .001$ ), 해당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며( $t(158) = -2.22, p < .05$ ), 피고인을 더 비난하였고( $t(158) = -3.30, p < .01$ ), 피고인의 책임 또한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t(158) = -2.18, p < .05$ ). 반면,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비면식 관계보다 전연인 관계였을 때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t(158) = 2.86, p < .01$ ), 피해자에게 더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t(158) = 2.60, p < .05$ ).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

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 인식 차이

	전 연인 관계		비면식 관계		<i>t</i>	<i>df</i>
	<i>M</i>	<i>SD</i>	<i>M</i>	<i>SD</i>		
사건 심각성	5.51	1.04	6.06	0.86	-3.64***	152
스토킹 해당 여부	5.75	1.13	6.14	1.08	-2.22*	158
피고인 비난	5.43	1.09	5.98	1.02	-3.30**	158
피고인 책임	5.60	1.36	6.05	1.25	-2.18*	158
피해자 비난	2.88	1.59	2.21	1.33	2.86**	158
피해자 책임	3.21	1.52	2.58	1.57	2.60*	158

\*\*\*  $p < .001$ , \*\*  $p < .01$ , \*  $p < .05$

건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어진 분석에서는 피고인-피해자 관계 조건에 따라 각각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우선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는 연구 참여자 성별과 사건 심각성( $r = -0.28, p < .05$ ), 스토킹 해당 여부( $r = -0.22, p < .05$ ), 피고인 비난( $r = -0.23, p < .05$ )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r = 0.32, p < .01$ ), 관계적 공격성은 스토킹 해당 여부( $r = -0.29, p < .05$ ), 피고인 비난( $r = -0.27, p < .05$ )과 부적 상관, 피해자 비난( $r = 0.33, p < .01$ ), 피해자 책임( $r$

표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								
2	0.18	-							
3	-0.04	0.04	-						
4	-0.28*	-0.06	-0.22	-					
5	-0.22*	0.09	-0.29*	0.63***	-				
6	-0.23*	-0.01	-0.27*	0.68***	0.56***	-			
7	0.06	0.32**	-0.16	0.31**	0.32**	0.45***	-		
8	0.17	0.12	0.33**	-0.17	-0.29*	-0.20	-0.14	-	
9	0.12	0.14	0.32**	-0.28*	-0.31**	-0.26*	-0.20	0.85***	-
1	-								
2	0.12	-							
3	-0.27*	-0.15	-						
4	-0.10	0.26*	-0.22*	-					
5	-0.13	0.17	-0.09	0.50***	-				
6	0	0.24*	-0.27*	0.68***	0.49***	-			
7	-0.02	0.09	-0.05	0.34**	0.40***	0.35**	-		
8	0.12	0.01	0.16	-0.45***	-0.53***	-0.40***	-0.33**	-	
9	0	-0.06	0.18	-0.43***	-0.53***	-0.42***	-0.37**	0.84***	-

주 1. 1 = 성별(0 = 여성, 1 = 남성), 2 = 대인관계 유능성, 3 = 관계적 공격성, 4 = 사건 심각성, 5 = 스토킹 해당 여부, 6 = 피고인 비난, 7 = 피고인 책임, 8 = 피해자 비난, 9 = 피해자 책임

\*\*\*  $p < .001$ , \*\*  $p < .01$ , \*  $p < .05$

= 0.32,  $p < .01$ )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사건 심각성 인식은 스토킹 해당 여부( $r = 0.63, p < .001$ ), 피고인 비난( $r = 0.68, p < .001$ ), 피고인 책임과는 정적 상관이( $r = 0.31, p < .01$ ), 피해자 책임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0.28, p < .05$ ). 스토킹 해당 여부는 피고인 비난( $r = 0.56, p < .001$ ), 피고인 책임( $r = 0.32, p < .01$ )과는 정적 상관이, 피해자 비난( $r = -0.29, p < .05$ ), 피해자 책임( $r = -0.31, p < .01$ )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피고인 비난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 $r = 0.45, p < .001$ ), 피해자 책임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0.26, p < .05$ ). 피해자 비난과 피해자 책임 사이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0.85, p < .001$ ).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비면식 관계인 조건에서는 연구 참여자 성별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0.27, p < .05$ ). 대인관계 유능성은 사건 심각성( $r = 0.26, p < .05$ )과 피고인 비난( $r = 0.24, p < .05$ )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관계적 공격성은 사건 심각성( $r = -0.22, p < .05$ ), 피고인 비난( $r = -0.27, p < .05$ )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사건 심각성은 스토킹 해당 여부( $r = 0.50, p < .001$ ), 피고인 비난( $r = 0.68, p < .001$ ), 피고인 책임( $r = 0.34, p < .01$ )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피해자 비난( $r = -0.45, p < .001$ ), 피해자 책임( $r = -0.43, p < .001$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스토킹 해당 여부는 피고인 비난( $r = 0.49, p < .001$ ), 피고인 책임( $r = 0.40, p < .001$ )과 정적 상관이, 피해자 비난( $r = -0.53, p < .001$ ), 피해자 책임( $r = -0.53, p < .001$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피고인 비난은 피고인 책임과 정적 상관이( $r = 0.35, p < .01$ ), 피해자 비난( $r = -0.40, p < .001$ ), 피해자

책임( $r = -0.42, p < .001$ )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피고인 책임은 피해자 비난( $r = -0.33, p < .01$ ), 피해자 책임( $r = -0.37, p < .01$ )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 한편, 피해자 비난과 피해자 책임은 서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r = 0.84, p < .001$ ).

####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성별,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의 영향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건 심각성,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비난 및 책임, 피해자 비난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전 연인 관계 조건은 표 3, 비면식 관계 조건은 표 4 참조).

첫째,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 사건 심각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B = -0.59, t = -2.62, p < .05$ ),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B = -0.31, t = -2.11, p < .05$ )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비면식 관계 조건에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B = 0.40, t = 2.32, p < .05$ ),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B = -0.27, t = -2.13, p < .05$ ) 사건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B = -0.59, t = -2.44, p < .05$ ),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B = -0.45, t = -2.85, p < .01$ )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피고인 비난의 경우, 전 연인 관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B = -0.54, t = -2.29, p < .05$ ),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B = -0.40, t = -2.58, p < .05$ ) 높게 나타났다. 비면식 관계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피고인을

표 3.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B( $\beta$ )	t	F	adjR <sup>2</sup>	M(SD)
사건 심각성	상수	6.56	8.75 <sup>***</sup>	3.71 <sup>*</sup>	.093	5.51 (1.04)
	성별	-0.59(-0.29)	-2.62 <sup>*</sup>			
	대인관계 유능성	0.003(0.002)	0.01			
	관계적 공격성	-0.31(-0.23)	-2.11 <sup>*</sup>			
스토킹 해당 여부	상수	6.12	7.67 <sup>***</sup>	4.74 <sup>**</sup>	.124	5.75 (1.13)
	성별	-0.59(-0.26)	-2.44 <sup>*</sup>			
	대인관계 유능성	0.29(0.15)	1.41			
	관계적 공격성	-0.45(-0.30)	-2.85 <sup>**</sup>			
피고인 비난	상수	6.39	8.18 <sup>***</sup>	3.80 <sup>*</sup>	.096	5.43 (1.09)
	성별	-0.54(-0.25)	-2.29 <sup>*</sup>			
	대인관계 유능성	0.08(0.04)	0.39			
	관계적 공격성	-0.40(-0.28)	-2.58 <sup>*</sup>			
피고인 책임	상수	3.76	3.86 <sup>***</sup>	3.82 <sup>*</sup>	.097	5.60 (1.36)
	성별	-0.03(-0.01)	-0.09			
	대인관계 유능성	0.75(0.33)	2.99 <sup>**</sup>			
	관계적 공격성	-0.31(-0.17)	-1.62			
피해자 비난	상수	0.20	0.18	4.43 <sup>**</sup>	.115	2.88 (1.59)
	성별	0.55(0.17)	1.61			
	대인관계 유능성	0.20(0.08)	0.70			
	관계적 공격성	0.70(0.33)	3.14 <sup>**</sup>			
피해자 책임	상수	0.51	0.46	3.91 <sup>*</sup>	.100	3.21 (1.52)
	성별	0.35(0.12)	1.07			
	대인관계 유능성	0.27(0.11)	0.97			
	관계적 공격성	0.66(0.32)	3.03 <sup>**</sup>			

\*\*\*  $p < .001$ , \*\*  $p < .01$ , \*  $p < .05$

더 비난하였다( $B = -0.36, t = -2.41, p < .05$ ).  
 넷째, 피고인 책임 판단은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B = 0.75, t = 2.99, p < .01$ ).

다섯째, 피해자에 대한 인식은 전 연인 관계 조건에서만 유의하였다. 즉,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피해자를 더 비난하였고( $B = 0.70, t = 3.14, p < .01$ ), 사건에 대한 피해자

표 4. 비면식 관계 조건에서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준거변인	예측변인	B( $\beta$ )	t	F	adjR <sup>2</sup>	M(SD)
사건 심각성	상수	5.49	7.70***	4.04*	.104	6.06 (0.86)
	성별	-0.34(-0.20)	-1.78			
	대인관계 유능성	0.40(0.25)	2.32*			
	관계적 공격성	-0.27(-0.24)	-2.13*			
스토킹 해당 여부	상수	5.54	5.97***	1.70	.027	6.14 (1.08)
	성별	-0.39(-0.18)	-1.57			
	대인관계 유능성	0.34(0.17)	1.54			
	관계적 공격성	-0.17(-0.12)	-1.02			
피고인 비난	상수	5.54	6.53***	3.65*	.092	5.98 (1.02)
	성별	-0.20(-0.10)	-0.89			
	대인관계 유능성	0.41(0.22)	1.97			
	관계적 공격성	-0.36(-0.27)	-2.41*			
피고인 책임	상수	5.59	5.05***	0.30	-.027	6.05 (1.25)
	성별	-0.11(-0.05)	-0.38			
	대인관계 유능성	0.21(0.09)	0.77			
	관계적 공격성	-0.09(-0.05)	-0.43			
피해자 비난	상수	0.97	0.84	1.47	.018	2.21 (1.33)
	성별	0.47(0.18)	1.53			
	대인관계 유능성	0.04(0.02)	0.15			
	관계적 공격성	0.37(0.21)	1.79			
피해자 책임	상수	1.97	1.43	0.91	-.004	2.58 (1.57)
	성별	0.17(0.06)	0.46			
	대인관계 유능성	-0.11(-0.04)	-0.33			
	관계적 공격성	0.38(0.19)	1.57			

\*\*\*  $p < .001$ , \*\*  $p < .01$ , \*  $p < .05$

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인식하였다( $B = 0.66$ ,  $t = 3.03$ ,  $p < .01$ ).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각각

매개하는지에 관한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전 연인 관계와 비면식 관계 각각에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 연인 관계의 경우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Hayes, 2018),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비면식 관계에서도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비면식 관계에서 성별과 관계적 공격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므로, 매개효과 분석은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이버 스토킹 사건 인식 중 스토킹 해당 여부, 피고인 책임, 피해자 비난 및 책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역시 매개효과 분석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즉, 비면식 관계에서 성별이 사건 심각성과 피고인 비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먼저 성별이 사건 심각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림 1 참조). 즉,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b = -0.41, p < .05$ ), 관계적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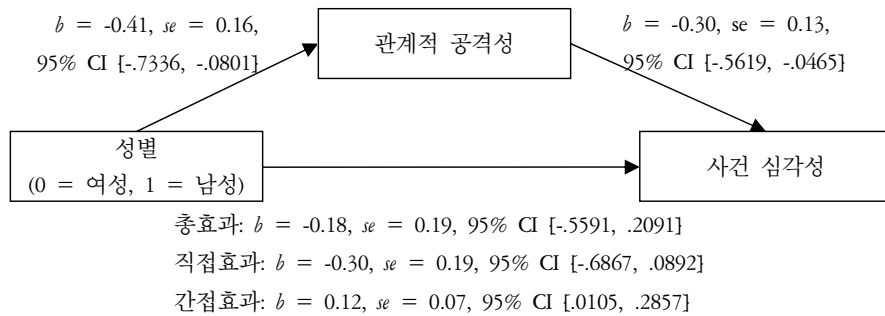


그림 1. 사건 심각성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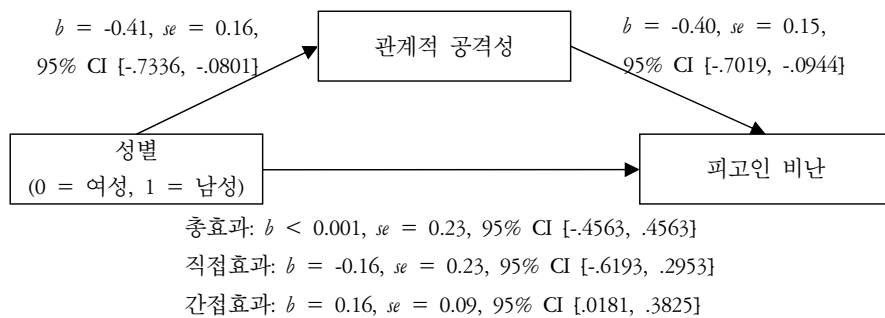


그림 2. 피고인 비난에 대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성이 높을수록 사건이 덜 심각하다고 여겨( $b = -0.30, p < .05$ ), 성별이 사건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한 것이다( $b = 0.12, 95\% \text{ CI } [.0105, .2857]$ ).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피고인 비난에 대해서도 유의하였다(그림 2 참조). 즉,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았으며( $b = -0.41, p < .05$ ),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피고인을 덜 비난하여( $b = -0.40, p < .05$ ), 성별이 피고인 비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 공격성이 매개하였다( $b = 0.16, 95\% \text{ CI } [.0181, .3825]$ ).

## 논 의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즉, 전 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일 때 사건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피고인을 더 강하게 비난하고 피고인의 책임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서로 친밀한 관계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발생한 오프라인 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더 비난하고 심각성을 높게 평가한 선행연구 결과(Scott et al., 2014; Weller et al., 2013)가 사이버 스토킹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비면식 관계보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점인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는 등 이차 피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나,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스토킹 사건의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를 더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전 연인 관계보다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 반대로 비면식 관계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하며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더 높았다(White, Longpré, & Stefanska, 2022). 따라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괴리가 스토킹 사건이나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으로 작용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판단자의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여성보다 남성이 사건의 심각성은 축소하고,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단, 이러한 영향은 전 연인 관계에서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과는 달리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의 심각성과 스토킹 해당 여부에는 성별에 따른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을수록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하였고, 비면식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의 심

각성은 축소하고 사건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며 피고인을 덜 비난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 책임 판단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판단자의 성별에 따라 스토킹 사건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여주는 본 연구 결과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 시 배심원을 구성할 때 성별 분포를 고려하거나 성별에 따른 스토킹 인식 차이가 스토킹 사건의 유무죄나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 갈등, 의사소통 능력 등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적 공격성 등의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사이버 스토킹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간 권위주의나 성희롱 통념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학교폭력이나 성적 괴롭힘 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는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관계적 공격성 외에도 스토킹 사건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구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별과 사이버 스토킹 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3-1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성별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인관계 유능성에서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조혜경, 2018). 특히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성차가 갈등 관리 능력

이나 관계 개시 능력 등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이지선, 정혜정, 2016; Buhrmester et al., 1988; Smith-Adcock & Kerpelman, 2022), 향후에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다양한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3-2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건 심각성은 더 낮게 인식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은 이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가해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과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Miller-Ott & Kelly, 2013).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에서도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이 사건에 대한 인식과 피고인/피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50대 성인 남녀 총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 크기가 작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경찰이나 판사 등 형사사법 종사자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시나리오에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이외에도 사이버 스토킹에는 온라인으로 이미지나 음향,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해당된다(김은주 등, 2021).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스토킹 행위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해본 적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더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은주 등, 2021), 앞으로는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사이버 스토킹 경험 여부를 통제 변인으로 활용하여 스토킹 해당 여부에 관한 인식 등을 살펴본다면 한층 더 세심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있어 가-피해자 관계나 판단자의 성별, 대인관계 유능성이나 관계적 공격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스토킹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스토킹 사건 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비난 등의 이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법조인들을 대상으로도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가-피해자 관계에 따른 인식 차이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추후 실제 형사사법 절차에서 스토킹 사건 심각성에 있어 실제와 인식 간의 괴리(White et al., 2022)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곽민주 (2020). 성인초기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 유능성: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인식 명확성, 정서표현양가성의 군집비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보정 (2021).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의 조

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2), 55-67.  
김경희, 이희경 (2015).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긍정정서의 영향: 경험 회피와 자기자비, 인지적 공감의 경로 탐색. 상담학연구, 16(6), 83-107.  
김남영, 박완주 (2021). 대학생의 대인관계 친밀감과 관계적 공격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과학수사학회지, 15(3), 205-216.  
김은영 (2016). 스토킹행위에 대한 인식과 경찰개입의 필요성 판단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3), 93-112.  
김은영, 윤민우 (2016). 스토킹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분석. 사회과학연구, 23(1), 55-82.  
김은주, 류영숙, 이지원, 이희진 (2021).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서울: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김현진, 김혜란 (2018).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실환경, 16(3), 93-102.  
박순진 (2012). 범죄발생 추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과장된 인식과 자기 편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3), 233-265.  
박지선 (2014). 사이코패스에 관한 대중의 인식과 두려움. 한국범죄학, 8(2), 145-176.  
박현정 (2022). 온라인 스토킹의 위험요소와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법이론실무연구, 10(4), 437-458.  
배라영, 최지영 (2018). 한국판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55-79.  
송민진, 박현정 (2021). 스토킹의 현주소와 피

- 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이론실무연구, 9(2), 141-170.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테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오지혜, 윤혜미 (2017).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2), 1-12.
- 우옥수, 이자영 (2020). 자기초점적 주의와 대인관계 유능성과의 관계: 자기자비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753-772.
- 윤정숙 (2018). 직장인 남성의 성희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131-150.
- 이성식, 신지민, 임수경, 임형연 (2020). 사이버스토킹의 설명요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32(2), 97-122.
- 이성식, 장하영 (2020).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공식처벌인지의 억제효과에서 개인차의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1), 99-116.
- 이지선, 정혜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99-121.
- 이하연, 박주희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233-258.
- 임정우, 홍혜영 (2016). 내면화된 수치심이 대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역기능적 분노표현을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4(1), 63-75.
- 정도희 (2022). 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2), 109-135.
- 정완 (2021). 사이버스토킹의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6(3), 477-505.
- 정유지 (2022). 내면화된 수치심이 연인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 불안정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4), 993-1008.
- 조무용, 김정인 (2016). 대학생들의 스토킹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 지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3(3), 341-364.
- 조은경, 박지선 (2021). 살인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민족성과 성별에 따른 차이. 형사정책연구, 32(4), 63-90.
- 조혜경 (2018).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2), 475-483.
- 조혜민, 박지선. (2022).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13(3), 205-225.
- 한나리, 이동귀 (2010). 한국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137-156.
- 홍애순 (2022). 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31(4), 235-253.
- 홍지용, 주혜원, 현명호 (2016). 청소년의 권위주의 성격과 친애동기가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효과: 암묵적 연합검사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3(9), 233-254.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 Bongiorno, R., Langbroek, C., Bain, P. G., Ting, M., & Ryan, M. K. (2020). Why women are blamed for being sexually harassed: The effects of empathy for female victims and male perpetrator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44(1), 11-27.
- Buhrmester, D., Furman, W., Wittenberg, M. T., & Reis, H. T.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 Chung, K. L., & Sheridan, L. (2021). Perceptions of stalking: Examining perceivers' country of origin, perpetrator-target prior relationship, and the mediating effect of victim responsibi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21-22), NP19644-NP19663.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 Markon, K.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D. Bernstein (Ed.), *Gender and motivation* (pp. 75-141),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i Stasio, M. R., Rinaldi, C., Sciaraffa, J., & Cheong, C.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rect aggression and loneliness for emerging adults: What does interpersonal competence have to do with wellbeing?.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66(1), 1-16.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Lambert, E. G., Smith, B., Geistman, J., Cluse-Tolar, T., & Jiang, S. (2013). Do men and women differ in their perceptions of stalking: An exploratory study among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8(2), 195-209.
- Leff, S. S., Waasdorp, T. E., & Crick, N. R. (2010). A review of existing relational aggression programs: Strength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School Psychology Review*, 39(4), 508-535.
- Miller-Ott, A. E., & Kelly, L. (2013). Mean girls in college: An analysis of how college women communicatively construct and account for relational aggression.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36(3), 330-347.
- Mullen, P. E., Pathé, M., & Purcell, R. (2001). Stalking: New constructions of human behaviou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5(1), 9-16.
- Nelson, D. A., & Carroll, J. S. (2006). *Couples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scale (CRAViS)*. Provo, UT: RELATE Institute.
- Scott, A. J., Rajakaruna, N., Sheridan, L., & Sleath, E. (2014). International perceptions of stalking and responsibility: The influence of prior relationship and severity of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2), 220-236.
- Smith-Adcock, S., & Kerpelman, J. L. (2022).

- Interpersonal stres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gender matter for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Considerations for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100(1), 64-74.
- Spitzberg, B. H., & Cupach, W. R. (1989).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 Blame attributions and rape: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lationship level.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8(2), 254-261.
- Weller, M., Hope, L., & Sheridan, L. (2013). Police and public perceptions of stalking: The role of prior victim-offender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8(2), 320-339.
- White, E., Longpré, N., & Stefanska, E. B. (2022). Stalking behaviors presented by ex-intimate stalkers: A victim's perspectiv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7-8), NP5074-NP5093.

1차원고접수 : 2023. 04. 26.

심사통과접수 : 2023. 06. 05.

최종원고접수 : 2023. 06. 30.

## Judgment of Cyber Stalking by Offender-Victim Relation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lational Aggression

Hyeonseung K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lthough cyber stalking has become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issues, there are a few studies on factors related to judgment of cyber stalking. We investigated factors affecting judgment of cyber stalking such a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gender. We also explored whether judgment of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offender/victim responsibility, and offender/victim blame were affected b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s known to be related to interpersonal problem and conflict, and interaction skills. Based on a sample of 160 people (80 males, 80 females)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the study showed that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hich occurred between strangers than ex-lovers was evaluated more highly, the offender was blamed more,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victim for the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lower. The lower the relational aggression, the higher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was evaluated, and the more highly blamed the offender. The effect of gender on judgment of cyber stalking was mediated by the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omen than men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 level of relational aggression, which in turn led to lower judgment of the seriousness of cyber stalking and offender blam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criminal justice policy implications on cyber stalking victim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Key words* : cyber stalking, interpersonal competence, relational aggression, offender-victim relationship, offender blame